

그려지는 것과 그려진 것의 사이 - 이강소의 작품에 대하여 -

오광수(미술평론가)

2015

이강소의 화면엔 언제나 시작이 있다고 말했을 때, 시작이 있을 뿐이라는 단정적인 뉘앙스와 더불어 일정한 진행과 그 결과로서의 완성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캔버스 위에 나타나는 그림이란 언제나 완성된 것을 함의하고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그의 화면은 언제나 미완을 지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미완으로서의 그림이란 아직 진행 중인 한에서만 가능할 터인데 그는 이를 완성의 한 형태로 대담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려지면서 동시에 그려진 것이 아닌 상태를 지향한다는 역설을 보이고 있는 셈이 아닌가. 과연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을까. 결과물로서의 객관적인 존재로 태어나지 않고 진행과 결과의 사이에 있다면 즉 그려지는 것과 그려진 것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면 하는 가정, 어쩌면 이 놀라운 상황의 연출이 실은 그의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73년 서울의 명동화랑에서 일주일간 열렸던 선술집과 75년 파리비엔날레에 바닥에 닭을 매어놓고 3일간 닭이 미리 뿌려놓은 밀가루 위를 돌게 하여 원을 만든 초기의 실험적인 작품이 근래의 작품인 캔버스화와는 전연 다른 매체와 상황이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자체를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선 흥미롭게도 닭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화랑 안에 만들어진 선술집에 들어섰을 때, 어 이게 뭐지 하던 당혹감은 없지만, 그의 화면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들은 자주 목격할 터이다. 선술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은 선술집이라는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인자임에도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던 것과 같이 아직 미완인 듯한 작품 앞에선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있다는 상황 자체까지를 완성이로 이끄는 하나의 인자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화면엔 극히 제한된 이미지이지만 동시에 풍요로운 이미지의 출현을 보게 된다. 오리, 사슴, 나룻배, 산, 집, 구름 등이 부단히 출몰한다. 이미지들은 그려지기보다는 그려지는 순간순간에 놓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그려지는 것과 그려지지 않은 간극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의 완숙한 모습이기보다 생성되는 순간으로서의 불완전성을 드러낸다. 그러기에 지시적인, 또는 객관적인 존재로서보다 얼마나 신선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태어나는 순간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말이다.

그려지는 것이 아닌 생성이란 말 속에는 화면이란 주어진 틀 즉 평면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닫혀있는 평면이 아닐 때 화면은 열려진 공간, 즉 우주공간 속에 놓이게 된다. 위에는 거대

한 먹구름이 덮이고 아래에는 오리떼들이 유유히 물 위를 떠간다. 곧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다. 한편에선 걱정적인 사태가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한편에선 여유로움이 펼쳐진다. 우주공간의 거대함에 비한다면 이 같은 걱정과 안일, 노도와 평정 또는 부분과 전체는 오히려 우주적 공간의 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화면에 명멸하는 모든 존재가 암시적으로 떠오르는데 여기에 이강소 표현의 독창성이 내재된다. 이 암시적인 표현이란 다름 아닌 획에 의한 이미지의 서술을 말함이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운필의 자적은 암시적인 이미지의 출몰에 더없이 적절하다. 오리나 사슴이나 구름은 오리나 사슴이나 구름이기 이전에 운필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존재의 형상이기에 앞서 자유롭게 운행된 필획의 현전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그림은 동시에 글씨라고 할 수 있다. 글씨와 그림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말이다. 원래 글씨와 그림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여 서화가 명동체라고 하였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몸이란 말이다. 어쩌면 이강소의 회화는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미지는 형사로서보다 상황으로 떠오르고 필세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화면을 가득히 채우는 기운으로 떠오른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사물을 그리는 데는 형사를 얻는 것이 형세를 얻는 것만 못하고 필세를 얻는 것이 운치를 얻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명대의 서화가 이일화의 화론에 나오는 말이다. 이강소의 회화를 여기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화면엔 형사보다 형세가 앞서고 필세보다 운치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이다.